

## 옥소 권섭의 기행가사 <영삼별곡>(寧三別曲)의 원전 비평

신현웅\*

- I. 머리말
- II. 문헌의 실상
- III. 작품 복원
- IV. 원전 비평의 의의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기행가사 <영삼별곡>(寧三別曲)을 복원하여 작품과 작가 연구의 토대를 보완하는 데에 있다. 유일본 『추명지』에 수록된 <영삼별곡>이 타인에 의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비평(Textual Criticism)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품 연구는 철저한 원전 비평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작품이 필사된 문헌을 자세히 조사해 그 실상을 본 연구의 제2장에 서술했다. 제3장에서는 문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삼아 원전에 가깝게 작품 복원을 시도했다.

제2장의 문헌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전 <영삼별곡>에서는 종이를 덧붙여 수정한 부분, 다른 시행을 잘라다가 덧붙여 일어난 착종, 한 면을 온전히 찢거나 한 행에서 두 행을 잘라내 결손된 상태 등이 조사되었다. 오래도록 접힌 부분을 펴고 다른 곳을 접어 귀글체가 흐트러져 있다. 찢기거나 잘리고 남은 부분에서 일부 시어가 발견되었다. <영삼별곡>이 필사된 『추명지』의 문헌적 성격과 권섭의 유지(遺旨)에 따른다면 결손은 타인의 변경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추명지』 원 종이에 필사된 부분은 권섭의 유지를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받들어 재필사가 완료된 때의 모습으로 판단된다.

제3장의 작품 복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삼별곡>의 분량은 발굴 당시 알려진 총 134행이 아니라 총 135행이었다. 이 가운데 이제껏 총 114행이 확인되었지만 이번 연구로 인해 총 3행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착종된 시행이 바로 잡혔고 일실된 부분의 위치가 모두 밝혀졌다. 이로써 권섭이 창작한 원본 혹은 그에 가까운 <영삼별곡>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

<영삼별곡>의 원전 비평의 대표적 의의는 다음의 셋이다. 첫째, 작품 원전의 실상이 드러나 그간의 쟁점과 문헌 문제가 해결되었다. 둘째, 기행가 사로서 <영삼별곡>의 일부 여정이 구체화되며 명확해졌다. 셋째, 여정이 명확해짐으로써 작품의 뾰족성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18세기 초반에 여행을 전문적으로 한 사대부 문인으로서 60여 년간의 여행 경험을 글로 자세히 남긴 권섭과 그의 여행에 대한 이해가 더욱 풍부해지리라 기대된다.

핵심어: 18세기, 조선 후기, 강원도, 충청북도, 관동, 서지 연구, 경화 사족, 여행

## 1.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기행가사 <영삼별곡>(寧三別曲)을 복원하여 작품과 작가 연구의 토대를 보완하는 데에 있다. <영삼별곡>은 옥소(玉所) 권섭(權燮, 1671~1759)이 1704년 음력 3월 한식날에 세거지 제천 천남(泉南)에서 출발하여 영월, 평창, 정선을 거쳐 삼척에 이르는 여행을 하며 느낀 감흥을 노래한 가사 작품이다. 이 작품은 기행 체험의 구체성과 사실성을 특징으로 하여 조선후기 기행가사의 변모를 여는 수작(秀作)으로 주목받아 왔다.<sup>1)</sup>

1) 박요순, 『옥소 권섭의 시가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권성민, 『옥소 권섭의 국문시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장정수, 『「영삼별곡」 연구』, 『어문논집』 32, 안암어문학회, 1993; 이창식, 『권섭의 가사 <영삼별곡>과 <도통가> 연구』, 『인문사회과학 연구』 4,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6;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 연구』, 역락, 2007; 최규수, 『<영삼별곡>에 나타난 탐문의 특징적 형상화와 의미』, 『열상고전연구』 18, 열

학계의 주목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토대가 되는, 원전 비평(Textual Criticism)은 학계의 문제의식을 끌어내지 못했다. <영삼별곡> 발견 당시에 원전의 결손이 보고되었지만 결손이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이해하는 데에 큰 문제로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삼별곡> 원전은 결손을 넘어 변개되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가사문학사상 주요 작품으로서 여행 체험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영삼별곡>에 대한 기초적인 원전 비평이 요청된다.

<영삼별곡>의 결손은 작품이 발굴될 때 원전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이후 영인본을 대상으로 두 차례 재조사되었다. <영삼별곡>은 총 134행으로 그 중 총 23행이 떨어져 나갔다고 최초 조사되었다.<sup>2)</sup> 이후 영인본을 대상으로 삼아 작품의 결손 상황이 간단히 재조사되었다.<sup>3)</sup> 그 결과 목서로 지워진 총 3행의 내용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영삼별곡> 시행은 총 114행이다.

선행 연구의 조사와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영삼별곡>의 문헌적 실상은 원전을 대상으로 삼아 자세히 조사되지 못했다. 종이를 덧붙여 수정한 부분, 다른 시행을 잘라다가 덧붙여 일어난 착종, 찢기거나 잘려 결손된 상태, 한 면이나 두 행을 잘라낸 흔적 등이 문헌 조사에서 발견되었다. 이로써 <영삼별곡>의 총 분량과 결손된 분량, 시행의 착종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원작품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도 일부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찢기거나 잘린 자리 주변에 시어가 필사된 부분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권섭이 창작한 <영삼별곡>의 실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원전 비평이 요구된다. 원전 비평은 문헌 조사와 작품 복원의 순서로 진행된다. <영삼별곡>이 필사된 문헌을 자세히 조사해 그 실상을 제2장에 서술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장에 작품 복원을 시도해 비평본을 확보한다. 이어 제4장에 원전 비평의 의의를 정리하며 논의를 마무리한다.

상고전연구회, 2003.

2) 박요순, 『육소연구』, 『한국언어문학』 14, 한국언어문학회, 1976, 220면(『육소 권섭의 시가연구』, 탐구당, 1990에 채수록).

3) 김현식, 『<영삼별곡>과 <도통가>를 통해서 본 권섭의 가사창작 양상과 그 의미』, 『국문학연구』 14, 국문학회, 2006; 김용찬, 『영월에서 삼척까지 화자의 여정을 따라 거닐다, <영삼별곡>』, 『오늘의 가사문학』 20, 교요아침, 2019.

## II. 문헌의 실상

본 장에서는 <영삼별곡>이 필사된 문헌의 실상을 자세하게 파악한다. 이때 형태 서지 연구를 중심에 두되 필요에 따라 내용 서지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영삼별곡>은 크기 17.5×25.5cm의 문경본 『추명지』(推命紙) 제122장 앞면부터 제128장 뒷면까지 총 7장에 걸쳐 2단 귀글체로, 장당 총 10행씩 필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총 4장은 가로 길이가 한 구에서 한 행이 부족할 정도로 짧다. 이로 인해 귀글체가 흐트러져 있다. 특정 시행 위에는 다른 시행의 종이가 오려 붙어 있기도 하다. 문헌의 복잡성에 대한 논의는 <영삼별곡>이 시작하는 제122장 앞면부터 차례로 진행한다.

아래 좌측은 제122장 앞면 전체이고 우측은 제목 부분을 확대한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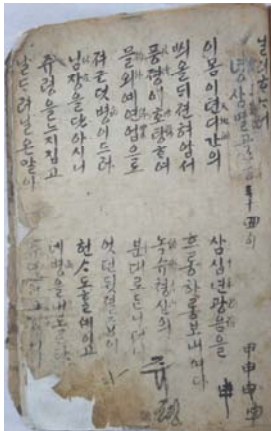


사진 1. 제122장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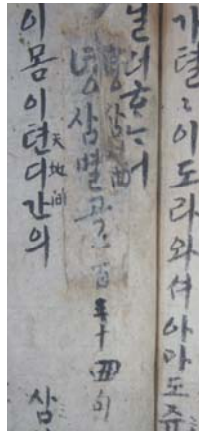


사진 2. 제목 부분

영인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원본에는 제목 부분에 종이를 덧대어 제목을 다시 쓴 흔적이 확인된다. 덧댄 종이에, 한글 제목 ‘영삼별곡’이 우선하고 그 우측에 한자 제목 ‘寧三別曲’이 병기되어 있다. 그 아래에는 ‘一百十冊句’로 분량이 표기되어 있다.<sup>4)</sup> 덧댄 종이 아래의 본면에는 한글과 한자 제

4) 전근대 가사의 분량을 세는 ‘句’는 현재 국문학 연구에서의 ‘행’에 대응한다.

목 자리가 뒤바뀌어 있다. 좌측에 한자 제목 ‘寧三別曲’이, 우측에 한글 제목 ‘녕삼별곡’이 표기되어 있다. <영삼별곡>에 앞서 필사된 시조 작품의 제목과 뒤에 필사된 가사 <도덕가>의 제목(사진 8)은 모두 한자로만 표기되어 있다. 제목 표기의 일관성을 감안한다면 덧댄 종이의 제목 표기 방식은 이례적이다. 곧 종이를 덧대기 전의 한자 제목 표기 우선이 원형이겠다. 이에 따르면 분량 표시도 문제적이다. 분량 표시의 百과 十의 사이는 먹으로 지워져 있다(■). 일의 자리(卍)는 가필되어 ‘二’, ‘三’, ‘四’, ‘五’ 가운데 어느 것인지는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이 복잡성은 작품의 복원 과정을 통해 해결될 것이다.

아래 좌측은 제122장 뒷면과 제123장 앞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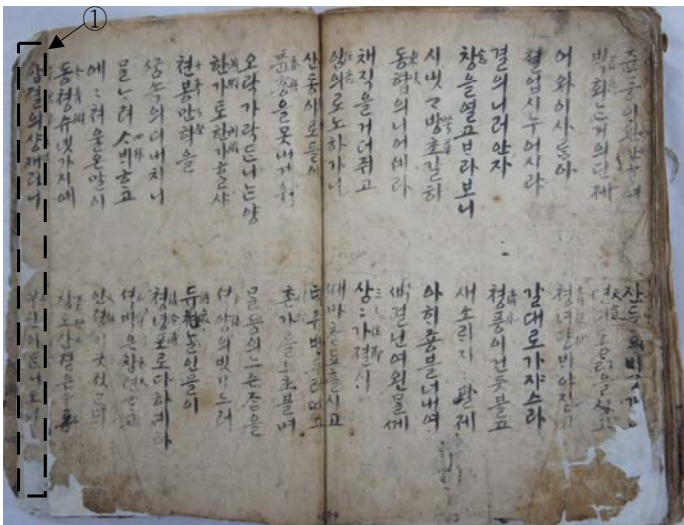


사진 3. 제122장 뒷면에서 제123장 앞면

위의 좌측에 해당하는 제123장 앞면은 한 구의 가로 길이에 해당하는 1.6cm 정도 짧다(①). 한 구의 가로 길이만큼 짧아지면서 귀글체가 흐트러졌다. 좌측 제123장 앞면 마지막행으로 제27·28행에 해당하는 ‘동청슈 넷 가지에 촉빅성은 므스 일고/창오산 점은 구름 같 길도 김홀시고’는 귀글체로서

각각 상단과 하단에 나란히 필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각 행의 전구(前句)는 제123장 앞면에, 후구(後句)는 제123장 뒷면에 나뉘어 필사되어 있다. 그 결과 상단의 제27행 한자어 우측에 병기된 ‘蜀魄聲’이 제123장 앞면, 접힌 부분, 제123장 뒷면에 걸쳐 있다.

아래는 제123장 뒷면과 제124장 앞면이다. 아래의 우측, 제123장 뒷면의 마지막 행 ‘물 건너 석권 □□ 취연이 좁겼고야’에는 목서로 지웠다가 복원한 흔적이 발견된다. 아울러 “동강을 건너리라 물꺾의 느려오니/샤공은 어디 가고 빈 비만 걸렸느니” 우측에 종이가 오래도록 접힌 흔적이 발견된다 (②). 이는 <영삼별곡>이 처음에 필사되었을 때 접힌 부분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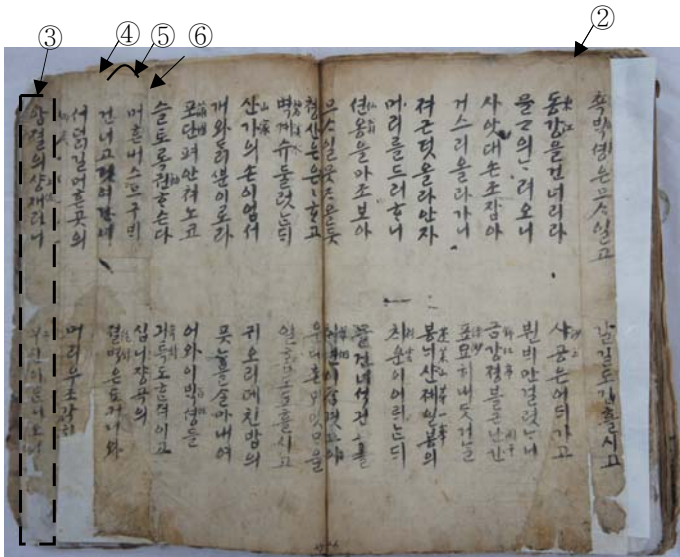


사진 4. 제123장 뒷면에서 제124장 앞면

위의 좌측을 보자. 제124장 앞면도 한 구의 가로 길이에 해당하는 2cm 정도 짧다(③). 한 구의 가로 길이만큼 짧아지면서 귀글체가 흐트러졌다. 좌측 제124장 앞면의 마지막행으로 제49·50행에 해당하는 ‘서덥길 머흔 곳의 냥협이 다하시니/머리 우 조각하늘 비락말락 흐느고야’라는 구절도 귀글체로서 각각 상단과 하단에 나란히 필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각 행

의 전구는 제124장 앞면에, 후구는 제124장 뒷면에 나뉘어 필사되어 있다. 그 결과 상단의 제49행의 한자어 우측에 병기된 ‘兩峽’이 제124장 앞면, 접힌 부분, 제124장 뒷면에 걸쳐 있다. 아울러 좌측의 제124장 앞면에는 오래도록 접힌 흔적(④)과 본면에 덧댄 종이(⑤), 자른 종이를 잇대어 붙인 흔적(⑥)이 발견된다. 제47행에 해당하는 위치의 덧댄 종이(④)에는 ‘머흔 내 슴 구비 건너고 것녀 가니’가 필사되어 있다. ‘포단 퍼 안쳐 노코 슬토록 권 흐스다/어와 이 빅성들 기특도 흔저이고’와 ‘머흔 내 슴 구비 건너고 것녀 가니/십니 장곡의 절벽은 도커니와’는 잘린 종이가 서로 붙어 한 면이 되었다(⑥). 이로 인해 아래의 붙은 면 후구에 병기된 한자 ‘十里長谷’이 위의 붙인 면에 의해 완전히 가려졌다.

아래는 제124장 뒷면에서 제125장 앞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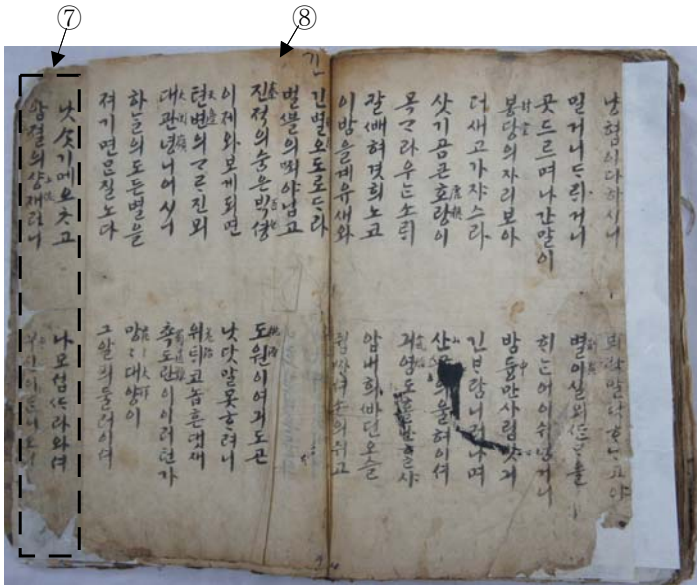


사진 5. 제124장 뒷면에서 제125장 앞면

위의 좌측, 제125장 앞면은 두 구의 가로 길이에 해당하는 3.6cm 정도 짧은 (⑦). ‘긴 별오 도로 드라 별뿔의 뿔야 님고’ 하단의 한 행은 잘렸다. 아울러

‘긴 별오 도로 드라 별썰의 띄야 님고’와 ‘진 적의 숨은 빅성 이제 와 보게 되면/도원이 여기도곤 낫닷 말 못흐려니’ 사이는 잘린 종이로 서로 붙어 한 면이 되었다(⑧). 이로 인해 아래의 붙은 면에 전구에 병기된 한자 ‘百姓’의 일부가 위의 붙인 면에 의해 가려졌다.

아래는 제125장 뒷면에서 제126장 앞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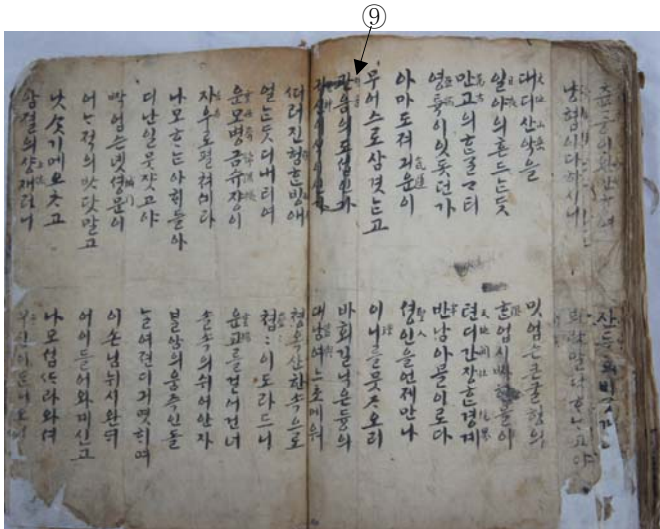


사진 6. 제125장 뒷면에서 제126장 앞면

위의 좌측 제125장 뒷면에는 ‘아마도 저 귀운이 무어스로 삼겼는고/성인을 언제 만나 이 니를 못즈오리’와 ‘관음의 도섭인가 귀신이 식어신가/바회 길 닉은 둥의 대남여 느초 메워’ 사이는 잘린 종이로 붙어 한 면이 되었다(⑨). 이로 인해 아래의 붙은 면 전구에 병기된 한자어 ‘觀音’의 일부가 위의 붙인 면에 의해 가려졌다. 제125장 뒷면과 앞면에는 잘라 붙인 흔적만 발견될 뿐 오래도록 접힌 부분의 흔적이 따로 보이지 않는다.

이어지는 제126장 앞면과 제127장 앞면은 문헌적으로 주목할 부분이 없다. 이에 다음 면에 제127장 뒷면과 제128장 앞면, 제128장 뒷면을 차례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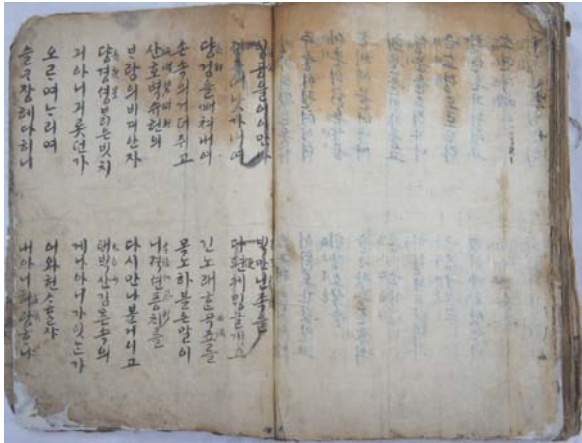


사진 7. 제127장 뒷면에서 제128장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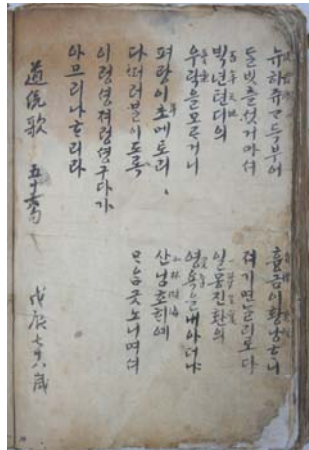


사진 8. 제128장 뒷면

위쪽 사진의 우측에 해당하는 제127장 뒷면은 아예 뜯겼다. 비교적 깔끔하게 뜯겨 그 남은 부분이 제본 부분에 가깝게 약간 남아 있다. 하단의 잘리고 남은 삼각형 부분에 ‘3’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보인다. 이외에도 제본된 부분에 뜯기고 남은 종이가 남아 있다. 그러므로 뜯김은 제책된 후에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2단 5행에 해당하는 총 10행이 사라졌다. 아래쪽의 제128장

뒷면은 <영삼별곡> 필사가 끝나는 부분이다. 마지막 행 “이령성 저령성 구다가 아프리나 흐리리”는 상단에 필사되므로 원본의 총 분량은 홀수가 된다. 이는 <영삼별곡>의 본래 분량이 이제까지 파악된 134행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 점은 본 장의 서두에 분량에 대한 가필을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

이상의 <영삼별곡> 원전에 대한 문헌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현전 <영삼별곡> 필사 부분은 종이가 잘리고 뜯기고 잘리고 덧대어진 상태이다. 권섭은 총 40권이 넘는 글 가운데 그대로 둘 글, 정밀하게 선별할 글, 버릴 글을 구체화하여 제천과 문경에 각각 한 질씩 필사해 두라는 유지(遺旨)를 남기며 『추명지』에 수록된 「가곡」, 「기몽」, 「화몽」, 「추명」 등을 그대로 두라고 했다.<sup>5)</sup> <영삼별곡>이 필사된 문경본 『추명지』는 “당대에 처음으로 수집 정리된 초고본을 다시 필사”한 문헌으로 추정된다.<sup>6)</sup> 시조 작품이 필사된 부분에는 <영삼별곡>에 보이는 물리적 변개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추명지』 원 종이에 필사된 부분은 권섭의 유지를 받들어 재필사가 완료된 때의 모습으로 판단된다. 만약 재필사가 권섭의 유지를 최대한 받들었다면 변개 이전의 작품 복원은 원작품 혹은 그것에 가장 가까운 작품이 된다. 이에 원작품에 최대한 다가서기 위해서는 작품 복원이 필요하다.

### III. 작품 복원

본 장에서는 제2장의 문헌 조사 결과로 인해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영삼별곡> 복원을 진행한다. 복원은 성격상 둘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째, 제123장부터 제125장까지 총 3장을 장별로 복원한다. 총 3장은 제122장 앞면부터 제128면 뒷면까지 필사된 <영삼별곡> 총 14면 가운데 잘리고 덧붙여 훼손된 부분이다. 복원에는 잘리거나 찢기고 남은 부분에서 확인된 시어까지 포함된다. 둘째, 제124장 앞면 상단 넷째 행에 덧붙은 “머흔 내 스

5) “『記夢』, 『書夢』, 『歌曲』, 『遊行』, 『問答』, 『墓山』, 『亭閣』, 可勿動而留之. ……『筆札』, 『推命』, 可仍留”. 권섭, 『산록내편』, 『옥소산록』, 이창희·장정수 역, 도서출판 다운샘, 2022.

6) 최호석, 『玉所의 문집 편집 구상과 石印本 『玉所集』의 간행』, 『영남학』 7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15면.

므 구비 건너고 건너 가니”(본고 제2장 사진 2의 ④)의 본면을 복원한다. 이상의 두 가지 복원을 진행한 후에 총 작품 분량 문제를 논한다. 복원 결과는 형태 서지적 특징을 적용하여 2단 귀글체로 보인다. 다만 가독성을 위해 한글 우측에 병기된 한자를 표시하지 않고 현대어 띄어쓰기를 반영한다. 아래는 복원한 제123장 앞면과 뒷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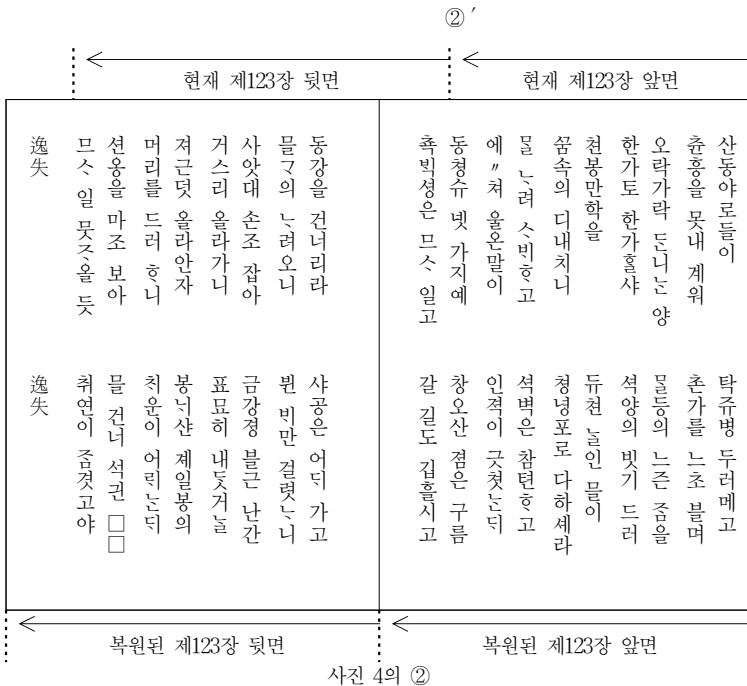


그림 1. 제123장 앞면과 뒷면 복원

위에 보였듯이 현재의 제123장 앞면(우측)과 뒷면(좌측)은 각각 총 상하 2단 45행이며 ‘동청수 넷 가지예’와 ‘축빅성은 무스 일고’ 사이가 접혀 있다(②'). 그런데 ‘동청수 넷 가지예 축빅성은 무스 일고’와 ‘동강을 건너리라 물ㄴ의 느려오니’ 사이에는 오래도록 접힌 자국이 선명하다(본고 제2장 사진 4의 ②). 접힌 자국을 중심에 두면, 우측은 ‘동청수 넷 가지예 축빅성은 무스 일고’까지가 되어 상하 2단 제5행의 귀글체가 완전한 한 면이 된다. 좌

측은 총 상하 2단 4행이 되어 상하 2단에 해당하는 총 2행의 시행이 부족해진다. 곧 ‘선용을 마조 보아 므스 일 못즈올 듯’ 뒤의 상하 1단 1행에 해당하는 총 2행이 일실되었다고 하겠다. 아울러 제123장 뒷면 하단 제4행의 ‘물 건너 석근 □□ 취연이 줌겜고야’는 목서를 했다가 칼로 다시 긁어내었다. □□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노을’, ‘고을’, ‘□골’ 정도로 파악된다.

아래는 복원한 제124장 앞면과 뒷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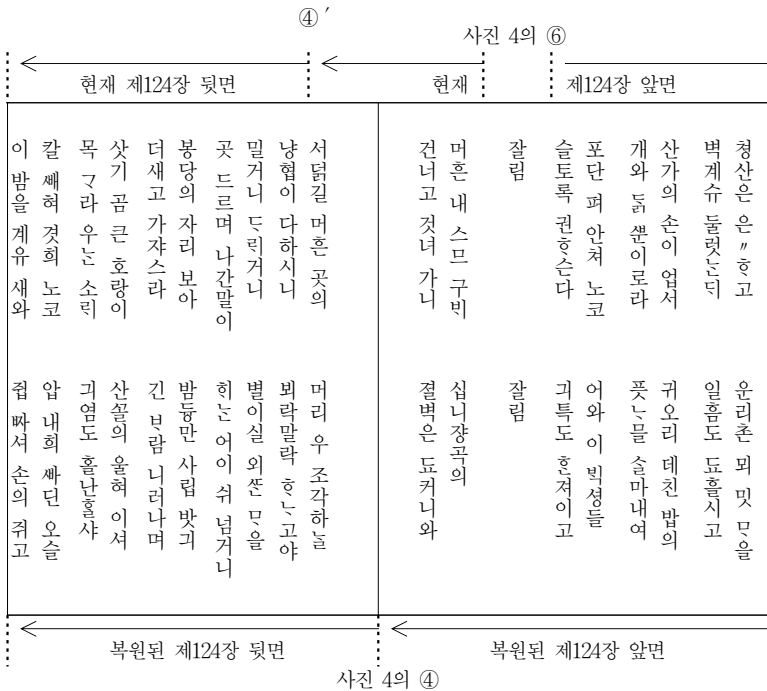


그림 2. 제124장 앞면과 뒷면 복원

위에 보였듯이 현재의 제124장 앞면(우측)과 뒷면(좌측)도 각각 총 상하 2단 총 4.5행이며 ‘서덥길 머흔 곳의’와 ‘낭협이 다하시니’ 사이가 접혀 있다 (④’). 그런데 ‘머흔 내 슴므 구비 건너고 것녀 가니’와 ‘서덥길 머흔 곳의 낭협이 다하시니’ 사이에는 오래도록 접힌 자국이 선명하다(본고 제2장 사진 4의 ④). 접힌 자국을 중심으로, 좌측은 ‘서덥길 머흔 곳의 낭협이 다하

시니'부터가 되어 상하 2단 제5행의 귀글체가 완전한 한 면이 된다. 우측은 총 상하 2단 4행이 되어 상하 2단에 해당하는 총 2행의 시행이 부족해진다. '포단 펴 안쳐 노코 슬도록 권흐스나/어와 이 빅성들 괴특도 혼저이고'와 '머흔 내 스므 구비 건너고 것녀 가니 십니장곡의 절벽은 도커니와'는 서로 자른 면을 이어 붙여 한 면이 되었다(본고 사진 4의 ⑥). 그러므로 상하 1단 1행에 해당하는 총 2행이 그 사이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제124장 앞면 복원과 관련해 앞면 상단의 마지막 행 '머흔 내 스므 구비 건너고 것녀 가니'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른쪽 사진(사진 9)의 좌측은 원본을 일반적으로 촬영한 사진(②)이고 우측은 이면에 불빛을 비춰 촬영한 사진(③)이다. 덧댄 종이 뒤로 목서가 된 '마차치(磨磴峙) □□□□ 곶의골 느려가니'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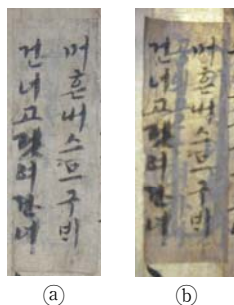


사진 9. '머흔 내~' 부분

목서 부분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원본에 해당한다. 첫째, 목서는 누구도 손을 대지 않은 본면에 필사되어 있다. 둘째, 여정의 순서이다. 영월에서 평창을 거쳐 정선에 이르는 길은, '머흔 내 스므 구비', '운리촌'(추정), '마차치(磨磴峙)', '곶의골', 별이(別異)실7)이다. '십니장곡(十里長谷)의 절벽(絶壁)은 도커니와/서덜길 머흔 곳의 냥협(兩峽)이 다하시니'는 현재 곶골로 불리는 곶의골의 특징이다. '머흔 내 스므 구비 건너고 것녀 가니'는 상동 이십천이므로 '청산(靑山)은 은 〃(隱隱)호고 벽계슈(碧溪水) 돌릿는디/운리촌(雲裏村) 피 밋 므을 일흠도 도홀시고'의 앞선 행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마차치(磨磴峙) □□□□ 곶의골 느려가니'를 목서한 후에, 보다 앞선 부분의 '머흔 내 스므 구비 건너고 것녀 가니'를 잘라다가 이곳에 붙여 현재의 문헌이 되었다 하겠다.

아래는 복원한 제125장 앞면과 뒷면이다.

7) 별이실은 '버리실'로 불린 별어곡(別於谷)이다. 『조선지리지자료』 41권의 정선군 남면 편에 '別於谷里'이 우리말로 '버리실'로 기록되어 있다. 2000년대까지도 80세가 넘는 고령의 마을 어른들은 '버리실', '베리실'이라 불렀다고 한다(『정선 남면 지명유래』, 정선군 남면사무소, 2011, 68~69면). '버리'는 깎아지른 높은 벼랑을 의미하며 별어곡의 서쪽이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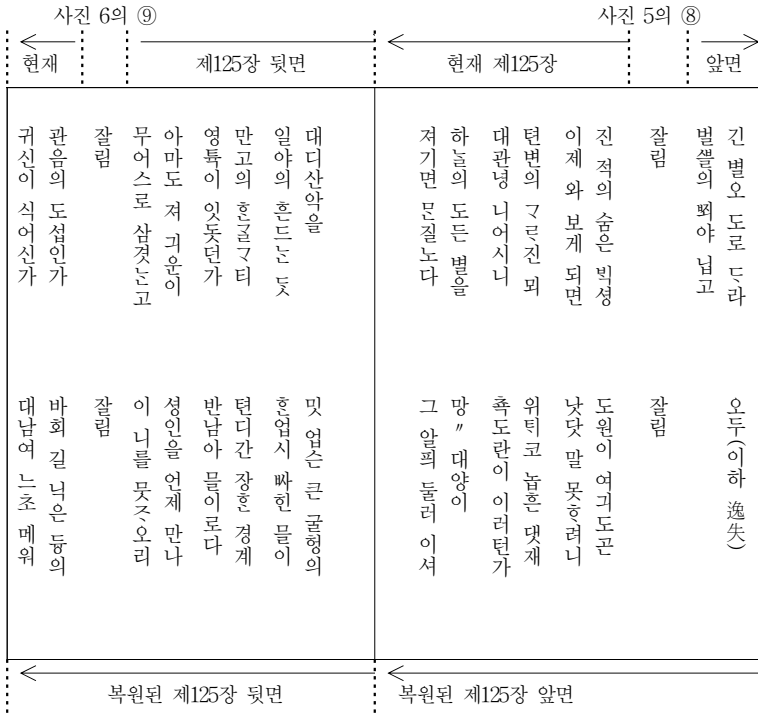


그림 3. 제125장 앞면과 뒷면 복원

위와 같이 현재 제125장의 앞면(우측)과 뒷면(좌측)은 각각 총 상하 2단 4행이다. 제123장이나 제124장과 달리, 원본의 접힌 부분은 현재 접힌 부분과 동일하다. 제125장 앞면의 제1행 ‘긴 별오 도로 드라 별썰의 뵈야 님고’와 제2행 ‘진 적의 숨은 빅성 이제 와 보게 되면’ 사이는 잘린 부분을 붙인 곳이다(사진 5의 ⑧). 제125장 뒷면의 제3행 ‘아마도 저 괴운이 무어스로 삼겼는고’와 제4행 ‘관음의 도섭인가 귀신이 식어신가’ 사이도 잘린 부분을 붙인 곳이다(사진 6의 ⑨). 한 면이 총 상하 2단 5행이므로 두 곳의 잘린 부분 사이에는 상하 1단의 총 2행의 시행이 각각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식별이 가능한 시어와 시행이 각각 하나씩이다. 전자는 제125장 앞면 하단 제1행의 첫 시어이다. 잘리고 남은 종이에 ‘烏頭’라는 한자 병기가 남아 있다. 후자는 제125장 뒷면 상단 마지막행이다. 이 행은 ‘관음의 도섭인가 귀신이

식어신가'로서 묵서로 지워져 있으나 그 시행이 명확히 확인된다. 그러므로 원본은 위와 같겠다.

이제 복원을 마무리하며 전체 분량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에 이르렀다. 일실과 묵서를 고려하지 않고 제122장 앞면부터 제128면 뒷면까지 총 7장에 걸쳐 작품이 빈틈없이 귀글체로 필사되었다고 하면 총 분량은 총 135행이 된다. 제122장 앞면에는 총 8행, 제122장 뒷면부터 제128장 앞면까지 총 12면에는 각 10행씩, 총 120행이, 제128장 뒷면에는 총 7행이 있거나 있었다. 복원에 따르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이 사라진 분량은 총 18행이 된다. 총 18행은 제123장 뒷면의 총 1행, 제124장 앞면의 총 2행, 제125장 앞면의 총 3행, 125장 뒷면의 총 2행, 제127장 뒷면의 총 10행 등 총 18행이다. 여기에 묵서가 된 시행은 총 4행으로 '물 건너 석권 □□ 취연이 좁겼고야', '관음의 도섭인가 귀신이 식어신가', '임공(任公)을 어이 만나 저 고래 낮가 내여/백만(百萬) 난족(鱗族)을 다 편(便)케 밍글게고'(제128장 앞면 상하단 제1행) 등이다. 총 135행에서 일실과 묵서에 해당하는 총 23행을 제하면 112행이 된다. 만약 묵서했다가 복원한 '물 건너 석권 □□ 취연이 좁겼고야'를 포함하면 총 분량이 113행이 된다. 만약 '마차치(磨磑峙) □□□□ 곱의골 느려가니'가 묵서되었을 때 '머흔 내 스므 구비 건너고 것너 가니'가 원 자리에 있었다고 본다면 총 분량은 114행이 된다.

총 135행이 총 112행에서 총 114행이 된 과정은 제목에 종이를 덧대고 총 분량을 수정한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현재 분량은 '一百■十冊句'로 표시되어 있는데 묵서된 ■ 뒤에 '三'이라는 숫자가 명확하다. 곧 원본은 '一百三十'으로 시작한다. 더욱이 '百'은 덧댄 종이가 아니라 덧대기 이전의 원본에 쓰인 글씨로 '三十'으로 이어진다. 일의 자리(冊)는 '二', '三', '四', '五' 가운데 어느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는 '二', '三', '四', '五'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이를 덧대고 수정된 분량은 현재 잘리고 뜯기고 묵서된 부분을 제한 후의 총 112행과 일치하며, 총 113행은 묵서 한 행을 복원시켰을 때, 총 114행은 한 행이 잘려 다른 곳에 붙기 전의 분량이 된다. 나아가 모든 묵서와 일실을 복원하면 총 135행이 된다.

본 장에서는 제2장의 문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삼별곡> 복원이 시도되었다. 그 결과 <영삼별곡>의 총 분량은 135행이었으며 총 19행이 잘리

거나 뜯겨 일실되었다. 목서로 지워진 부분도 총 3행에 해당했다. 그런데 덧붙인 종이 뒤를 촬영해 한 행을 복구하고 총 3행의 목서까지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영삼별곡>에서 확인이 가능한 시행은 총 117행이 된다. 아울러 일실된 부분의 시어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총 135행에 대한 복원 결과인 ‘비평본’은 부록에 정연하게 정리한다.

#### IV. 원전 비평의 의의

본 장에서는 <영삼별곡> 문헌 조사와 작품 복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원전 비평의 의의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작품이 수록된 문헌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이다. 둘째는 권섭이 1704년에 주천을 출발해 영월, 평창, 정선을 거쳐 삼척에 이르는 여정 일부가 명확히 밝혀진 점이다. 셋째는 첫째와 둘째로 인해 작품의 꺾진성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상의 세 가지 의의를 차례로 기술한다.

첫째, 현전하는 <영삼별곡> 문헌과 변개 이전의 원전에 대한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작품 연구는 철저한 원전 비평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문헌 조사를 통한 작품 복원은 작품 연구의 토대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총 3행의 목서와 아울러 1개 시행을 발굴했다. 1개 시행의 착종을 발견해 최대한 바로잡았다. 문헌 조사와 복원 과정에서 현전 <영삼별곡>이 목서, 자르기, 뜯기, 덧붙이기 등의 방법으로 현재 형태가 되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 결과 총 분량이 명확해졌다. <영삼별곡>의 이러한 변개는 <영삼별곡>을 새롭게 이해하는 단초가 되므로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

『추명지』가 권섭의 유지를 받들어 재필사한 문헌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복원 작품, 곧 비평본이 이제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서가 영인본으로 판별되더라도 작품이 다뤄질 때 목서가 포함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했다. 목서가 배제된 이유는 문경본이 권섭의 친필로 추정되어 목서가 작품의 손질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서를 배제하고 작품을 분석하면 사상 전개가 어색해지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는 목서를 복원해 작품을

분석했다. 본 연구를 통해 목서가 타인의 변개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목서를 위시하여 자르기, 뜯기, 덧붙이기 등과 관련된 시행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겠다.

둘째, 기행가사로서 <영삼별곡>의 여정이 일부 명확히 해결되었다. 복원을 통해 지명 시어가 드러나고 여정의 착종이 바로잡혔다. 현전 <영삼별곡>에서 확인되는 여정은 ‘제천 → 주천 → 청령포 → 동강 → 금강정 → 운리촌 → 별이실 → 땃재 → 청옥산 → 금소정 → 벽수헌’이다. 복원을 통해 ‘금강정 → 운리촌 → 별이실’이 ‘금강정 → 상동 이십천 → 운리촌 → 마차치 → 곰의골[곰골] → 별이실’로 명확해졌다. 이에 따르면 별이실은 정선군 남면 별어곡이 된다. 이 여정은 선행연구에서 조선 후기 김정호 제작 『동여도』, 『동국여지승람』, 정선군 지명 조사, 현대 웹지도의 자전거길 표시를 통해 재구된 바 있다.<sup>8)</sup> 이번 복원을 통해 금강정에서 별어곡까지의 여정이 명확해졌다.

아래는 제37행부터 제46행까지로 금강정을 출발해 상동 이십천을 올라 운리촌에 도착한 부분이다.

[	일실	]
머흔 내 슌 구빅		건니고 것너 가니 <sup>9)</sup>
청산(靑山)은 은 <sup>ㄴ</sup> (隱隱)호고		벽계수(碧溪水) 돌렀는디
운리촌(雲裏村) 뉘 밋 므을		일흠도 뉘홀시고
산가(山家)의 손이 업서		개와 뉘 썬이로라
귀오리 테친 밥의		푹스물 술마내어
포단(蒲團) 펴 안쳐 노코		슬도록 권(勸)호스다
어와 이 빅성(百姓)들		괴특(奇特)도 혼져이고
[	일실	]
[	일실	]

위에서는 상동 이십천을 거슬러 오른 후에 운리촌에 이르러 마을 사람에게

8) 고정희, 「<영삼별곡>을 통해 본 기행가사 교육의 방향」, 『선청어문』 4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12, 527~531면.

9) ‘마차치(磨磨峙) □□□□ 곰의골 느러가니’ 자리에 덧붙은 종이의 시행으로서 운리촌 앞의 여정에 해당한다. 이 시행은 ‘청산은 은은호고’의 앞에 잘린 시행 가운데 하나로 추정된다. 물론 ‘괴특도 혼져이고’ 뒤의 잘린 시행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본고의 12번 주석 참고.

대접을 받은 감흥이 표현된다. 윤리촌은 미상이다. 그런데 허목(許穆, 1595~1682)은 상동 이십천을 거슬러 오르면 석령(石嶺)에 이르게 되며 상동 입구에서 석령까지가 40리라고 했다.<sup>10)</sup> 영월 상동 입구에서 마지막 구비까지 40리 정도이며 석령을 넘으면 평창이 시작한다고 했으니<sup>11)</sup> 석령은 당시 영월과 맞닿은 평창 땅 석항(石項)이겠다. 그러므로 석항은 윤리촌으로 추정된다.<sup>12)</sup>

아래는 제47행부터 제56행으로 윤리촌에서 하룻밤을 묵고 나서 마차치(摩嵯峙, 摩差峙, 摩磋峙, 마차제)를 넘어 곰골로 내려와 10리 정도의 협곡을 지나 별이실, 곧 별어곡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묵은 경험을 노래한 부분이다.

마차치(摩嵯峙) □□□□	곰의골 내려가니
십니장곡(十里長谷)의	절벽(絶壁)은 도커니와
서넛길 머흔 곳의	낭협(兩峽)이 다하시니
머리 우 조각하늘	벼락말락 흥느고야
밀거니 드릭거니	곳 드르며 나간말이
별이(別異)실 외싼 ㅁ을	히는 어이 쉬 넘거니
봉당(封堂)의 자리 보아	더새고 가자스라
밤등(中)만 사립 밧기	긴 바람 니러나며
삿기 곰 큰 호랑(虎狼)이	목 ㄱ라 우는 소리
산솨의 울혀 이서	기염(氣焰)도 홀난홀샤

석항으로 추정되는 윤리촌에서 마차치까지는 30리<sup>13)</sup>로 예미를 거쳐 가사

10) “상동(上東)의 골짜기 어귀부터 석령(石嶺)까지는 40리이다”(從上東谷口, 至石嶺四十里). 허목, 『임인정월기행(壬寅正月記行)』, 『기언』 24권(고전번역원 번역).

11) “계를 넘으면 평창(平昌) 경계이다.”(逾嶺則平昌境). 위의 글.

12) 금강정에서 별어곡에 이르는 거리를 감안한다면 여정은 본문에 제시한 ‘금강정 → 상동 이십천 → 윤리촌 → 마차치’가 된다. 만약 ‘머흔 내 스무 구비’가 윤리촌 시행과 곰골 시행 사이에 사라진 총 2행 가운데 하나가 된다면 여정은 ‘금강정 → 윤리촌 → 머흔 내 스무 구비 → 마차치’가 된다. 이 경우 ‘머흔 내 스무 구비’는 예미에서 마차치에 이르는 신동읍 가사리 계곡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그런데 고유 지명에 가까운 ‘상동 이십천’이 ‘머흔 내 스무 구비’와 흡사하므로 일단 여정을 ‘금강정 → 상동 이십천 → 윤리촌 → 마차치’로 가정해 둔다.

13) “(석령을 넘어) 또 30리를 올라가면 마차령(摩嵯嶺)인데 정선(旌善)의 경계”(又三十里上摩

리 계곡을 따라 북상하는 길이다. 마차치에서 별이실[별어곡]에 이르는 곰의골[곰골]이 10리 정도이다. 누군가 덧붙인 종이 아래 본면에 필사된 ‘마차치(磨磋峙) □□□□ 곰의골 내려가니’ 시행이 발굴됨으로써 권섭의 여정이 명확해졌을 뿐만 아니라 ‘십리장곡’의 위치도 드러났다.

셋째, 여정의 명확화와 구체화는 <영삼별곡>의 도드라진 특징인 꺾진성을 더욱 면밀하게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영삼별곡>은 여행 체험을 구체적이고 사실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그런데 윤리촌이나 별이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여행 체험이 진술된 부분은 실제 장소나 여행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분석되어 왔다. 복원을 통해 윤리촌의 위치가 추론 가능해졌으며, 별이실이 정선군 남면 별어곡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아울러 금강정에서 윤리촌에 이르기까지, 윤리촌에서 별이실에 이르기까지의 여정도 드러났다. 이로써 여행 체험이 실제 현장을 바탕으로 상상되어 이해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예를 들면 마차치에 올랐다가 별이실[별어곡]에 이르기까지 양협이 닿은 10리의 곰의골[곰골]을 경유한 경험이 구체적인 장소를 통해 생생하게 상상된다.

<영삼별곡>은 권섭이 후손에게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한’(可勿動而留之) 『가곡』, 곧 시가의 하나이다. <영삼별곡>은 문경본 『추명지』에 그렇게 재필사되어 보관되었지만 타인에게 변경되었다. 이에 권섭의 수고본이 발견되지 않는 한 <영삼별곡>의 원형을 확인할 길이 없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영삼별곡>의 원형을 가늠할 수는 있게 되었다. 원전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남으로써 기행가사로서의 <영삼별곡>의 여정이 꽤나 명확히 밝혀졌으며, 작품의 꺾진성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18세기 초반에 여행을 전문적으로 한 사대부 문인으로서 60여 년간의 여행 경험을 글로 자세히 남긴 권섭<sup>14)</sup>과 그의 여행에 대한 이해가 더욱 풍부해지리라 기대된다.

嵯嶺, 旌善境). 허목, 앞의 글. “距東倉, 至旌善郡界摩磋峙, 三十里”. 『평창군지』(『관동읍지』). 평창군의 동창은 예미에 있었다.

14) 권섭, 『유행록』(문경세계박물관 편역, 『옥소 권섭의 『유행록』: 삼천에 구백리 머나먼 여행 길』, 문경세계박물관, 2008).

## V. 맺음말

본고에서는 옥소 권섭이 1704년에 제천 주천에서 출발해 삼척에 이르기까지의 감흥을 노래한 기행가사 <영삼별곡>에 대한 문헌 조사와 작품 복원을 중심으로 문헌 비평이 진행되었다. 제2장의 문헌 조사 결과, 원 필사본에 묵서, 자르기, 뜯기, 덧붙이기 등이 일어나 현재의 <영삼별곡>이 되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원본을 복원할 수 있는 접힌 자국, 덧붙인 부분, 잘려 남은 부분 등의 증거가 확보되었다. 문헌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3장에서는 <영삼별곡>의 복원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영삼별곡>은 총 135행이었고 이 가운데 총 117행이 확인되었다. 일실된 총 18행은 잘리거나 뜯긴 부분으로 새로운 자료가 출현될 때 파악이 가능해진다. 다만 문헌 상태를 감안한다면 제본을 해체할 때 일부 시어나 시행이 발견될 수 있다.

<영삼별곡>의 원전 비평의 의의는 다음의 셋으로 정리된다. 첫째, 작품 원전의 실상이 드러나 그간의 쟁점과 문헌 문제가 해결되었다. 둘째, 기행가사로서 <영삼별곡>의 일부 여정으로서 영월읍에서 별이실에 이르는 여정이 명확해졌다. 셋째, 여정이 명확해지면서 작품의 꺾진성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는 작품과 작가에 대한 이해가 더욱 풍부해지는 기초가 된다.

본 원전 비평을 통해 변개 이전에 가까운 비평본이 확보되었다. 이제 후속 연구로서 1704년 여행의 경험 가운데 특정 경험을 선택한 이유와 그 진술 방식, 그것과 <영삼별곡>의 주제와 작가 의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권섭이 수많은 여행 가운데 1704년 여행의 일부만을 소재로 삼아 <영삼별곡>을 창작하고 그 이후에 남긴 가사 작품이 전무한 이유도 권섭 생애의 여행 지형도를 그려 접근될 필요가 있다. 이에 권섭의 다른 여행도 세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 <도통가>의 형태 서지도 복잡성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자료

권섭, 『옥소집』.

\_\_\_\_, 『옥소산록』(이창희·장정수 역, 도서출판 다운샘, 2022).

\_\_\_\_, 『유행록』(문경새재박물관 편역, 『옥소 권섭의 『유행록』: 삼천에 구백리 떠나면 여행길』, 문경새재박물관, 2008)

\_\_\_\_, 『추명지』(문경새재박물관 소장).

『관동읍지(關東邑誌)』(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2172).

『기언(記言)』(허목; 한국고전번역원 번역, 한국고전번역원 누리집).

『정선 남면 지명유래』(정선군 남면사무소, 2011).

『조선지리지』(조선총독부 편,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 2. 학술논저

고정희, 「<영삼별곡>을 통해 본 기행가사 교육의 방향」, 『선청어문』 4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12, 523~556면.

권성민, 「옥소 권섭의 국문시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김용찬, 「영월에서 삼척까지 화자의 여정을 따라 거닐다, <영삼별곡>」, 『오늘의 가사 문학』 20, 고요아침, 2019, 35~48면.

김현식, 「<영삼별곡>과 <도통가>를 통해서 본 권섭의 가사창작 양상과 그 의미」, 『국문학연구』 14, 국문학회, 2006, 205~230면.

박요순, 「옥소연구」, 『한국언어문학』 14, 한국언어학회, 1976, 183~226면(『옥소 권섭의 시가연구』, 탐구당, 1990에 재수록).

\_\_\_\_, 「옥소 권섭의 시가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 연구』, 역락, 2007.

이창식, 「권섭의 가사 <영삼별곡>과 <도통가>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4,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6, 43~82면.

장정수, 「『영삼별곡』 연구」, 『어문논집』 32, 안암어문학회, 1993, 241~260면.

최규수, 「<영삼별곡>에 나타난 탐문의 특징적 형상화와 의미」, 『열상고전연구』 18, 열상고전연구회, 2003, 203~227면.

최호석, 「玉所의 문집 편집 구상과 石印本 『玉所集』의 간행」, 『영남학』 7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7~32면.

## Textual Criticism of “Yeongsambyeolgok”, written by Kwon Seop

Shin, Hyunwoong

This paper restored the original work by analyzing the bibliography of “Yeongsambyeolgok”. “Yeongsambyeolgok” is a Travel-Gasa about Okso Kwon Seop’s travel experience in 1704. There is still no source criticism of “Yeongsambyeolgok”. The current “Yeongsambyeolgok” is a work that has been changed and damaged by descendants. Therefore, the source criticism, which is the basis for the study of the work, was conducted in Chapter 2. Based on the results of the original criticism, the work was restored in Chapter 3.

The research results in Chapter 2 are as follows. Currently, the following literature characteristics have been found in “Yeongsambyeolgok”. The contents were revised by adding paper to the original paper. While cutting the implementation elsewhere, it was added, resulting in an illusion. Someone tore or cut the off original paper. For a long time, the folded part was unfolded, and the earlobes were disturbed by folding other parts. Poetic diction was found in the parts that were torn or cut. According to the literary nature of the original papers of Chumyeongji (추명지) where “Yeongsambyeolgok” was transcribed and Kwon Seop’s desire for “Yeongsambyeolgok”, the deficit in “Yeongsambyeolgok” is presumed to be the damage to others. The part that was transcribed on the original paper of Chumyeongji is the appearance of the original when the rewriting of the original was completed.

The volume of restored work is a total of 135 lines. A total of three more trials have been discovered due to this paper. The acquired trials were also caught immediately. The location of the lost part was revealed. The restoration results are in the appendix. This allows you to know the original or the appearance close to the original.

The three representative significance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reality of the original work was revealed, and issues and literature problems were resolved.

Second, as a travel lyric, some of the journeys of “Yeongsambyeolgok” became concrete and clear. Third, as the journey became clear, the foundation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work’s verisimilitude was laid.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Kwon Seop, who left detailed travel experiences for over 60 years as a writer and seasoned traveler who specialized in travel in the early 18th century, an understanding of his travel will be enriched.

Keyword: 18th Century, Late Joseon Dynasty, Gangwon-do, Chungcheongbuk-do, Kwandong(關東), bibliography research, Kyunghwa-Sajok(京華士族), Travel

접수일자: 2024. 3. 31. 심사기간: 2024. 4. 1.~2024. 5. 10. 계재결정: 2024. 5. 10.
--

[부록] <영삼별곡> 비평본

寧三別曲

一百三十五句

甲申

天地間  
001 이 몸이 텃던간의뻘을 더 전혀 업서  
三十年 光陰  
삼십년 광음을 호롱하롱 보내여다  
風情 浩蕩 物外 絳柔  
풍정이 호탕하여 물의에 연업으로  
綠水 靑山 分  
녹수 청산의 분대로 든디너니  
病 林庄  
005 저근덧 병이 드러 님장을 닷아시니  
엇던 뒷절 중이 현수도 흘세이고  
踰령을 느지 집고 날드려 날온 말이  
病 水石 靑竹  
네 병을 내 모라랴 슈석의 고향이라

[122a]

春風 曉曉 百花  
춘풍이 완만하여 빅화는 거의 딘 제  
山中 天氣  
010 산둥의 비 꺾 개니 텃디도 뭍을시고  
어와 이 사름아 철업시 누어시랴  
靑巖杖  
청녀당 비야 집고 갈대로 가자스라  
窓 窓  
결의 니러 안자 창을 열고 보라보니  
清風  
청풍이 건듯 불고 새소리 지" 쥘 제  
芳草 東峽  
015 시냇" 방초 길히 동협의 니어세랴  
아희중 불너내어 뼈 걸닌 여원 몰쥌  
任意  
채직을 거더취고 임의로 노하 가니  
三 佳節  
삼" 가절이 때마춤 도홀시고

[122b]

山童 野老 春興  
산동 야로들이 춘흥을 못내 계워  
高酒瓶 村歌  
020 탁주병 두리메고 촌가를 느조 불며  
樓 階 階  
오락가락 든니는 양 한가도 한가홀샤

夕陽  
물등의 느즌 줍을 석양의 빗기 드러  
千峯 萬壑  
천봉 만학을 씬속의 디내치니  
泉流 清冷浦  
듀천 늘인 물이 청녕포로 다하세랴  
四拜  
025 물 느러 스비하고 에" 처 울온말이  
石壁 參天 人跡  
석벽은 참던 하고 인적이 굿쳤느디  
冬青樹 蜀魂聲  
동청슈 넷 가지에 촉빅성은 므스 일고  
蒼梧山  
창오산 점은 구름 갈 길도 김홀시고

[123a]

東江  
동강을 건너리라 물"의 느려오니  
沙工  
030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비만 걸렸느니  
사얏대 손조 잡아 거스리 올라가니  
緇江亭 橋脚  
금강정 불근 난간 표묘하 내듯거늘  
저근덧 올라안자 머리를 드러 하니  
蓬萊山 第一峰 彩雲  
봉니산 제일봉의 치운이 어러느디  
仙翁

035 선옹을 마조 보아 므스 일 못즈올 듯  
翠壁 翠壁  
물 건너 석권 □□ 취연이 줍것고야

[ 일실 ]

[머흔 내 슴 구비 건너고 겹너 가니(推)]

[123b]

靑山 隱 碧溪水  
청산은 은" 하고 벽계슈 돌렀느디  
雲叢村  
040 운리촌 피 밋 막을 일흠도 도홀시고  
山家  
산가의 손이 업서 개와 돛 썬이로라  
瀾關 勳  
귀오리 테친 밥의 풋느를 술마내어  
포단 피 안쳐 노코 슬도록 권 홀스나

어와 이 <sup>百姓</sup>빅성들 <sup>奇特</sup>기특도 <sup>高</sup>흔저이고  
 045 [ 일실 ]  
 [ 일실 ]  
<sup>磨碌時</sup>마차치 □□□□ <sup>絕壁</sup>곰의골 <sup>絶</sup>느려가니  
<sup>十里 長谷</sup>십니 <sup>絶壁</sup>장곡의 <sup>絶壁</sup>결벽은 <sup>絶</sup>도커니와  
 [124a]

서땀길 <sup>兩峽</sup>머흔 <sup>兩峽</sup>곳의 <sup>兩峽</sup>냥협이 <sup>兩峽</sup>다하시니  
 050 머리 <sup>兩峽</sup>우 <sup>兩峽</sup>조각하늘 <sup>兩峽</sup>벼락말락 <sup>兩峽</sup>흐노고야  
<sup>別英</sup>밀거니 <sup>別英</sup>드러거니 <sup>別英</sup>곳드르며 <sup>別英</sup>나간말이  
<sup>封金</sup>별이실 <sup>封金</sup>외썩 <sup>封金</sup>믈 <sup>封金</sup>혀는 <sup>封金</sup>어이 <sup>封金</sup>쉬 <sup>封金</sup>넘거니  
<sup>中</sup>봉당의 <sup>中</sup>자리 <sup>中</sup>보아 <sup>中</sup>더새고 <sup>中</sup>가자스라  
<sup>虎狼</sup>밤등만 <sup>虎狼</sup>사랍 <sup>虎狼</sup>밧기 <sup>虎狼</sup>긴 <sup>虎狼</sup>브람 <sup>虎狼</sup>니러나며  
 055 <sup>虎狼</sup>삿기 <sup>虎狼</sup>곰 <sup>虎狼</sup>큰 <sup>虎狼</sup>호랑이 <sup>虎狼</sup>목 <sup>虎狼</sup>ㄴ라 <sup>虎狼</sup>우는 <sup>虎狼</sup>소리  
<sup>氣焰</sup>산술의 <sup>氣焰</sup>울혀 <sup>氣焰</sup>이서 <sup>氣焰</sup>기염도 <sup>氣焰</sup>흘난<sup>氣焰</sup>홀사  
<sup>氣焰</sup>칼 <sup>氣焰</sup>빠혀 <sup>氣焰</sup>겻희 <sup>氣焰</sup>노코 <sup>氣焰</sup>이 <sup>氣焰</sup>밤을 <sup>氣焰</sup>계유 <sup>氣焰</sup>새와  
<sup>氣焰</sup>압 <sup>氣焰</sup>내희 <sup>氣焰</sup>빠딘 <sup>氣焰</sup>오슬 <sup>氣焰</sup>꺾 <sup>氣焰</sup>싸서 <sup>氣焰</sup>손의 <sup>氣焰</sup>쥐고  
 [124b]

긴 <sup>別路</sup>별오 <sup>別路</sup>도로 <sup>別路</sup>드라 <sup>別路</sup>별썰의 <sup>別路</sup>뵈야 <sup>別路</sup>넙고  
 060 [ <sup>鳥頭</sup>잘림 ]  
 [ <sup>鳥頭</sup>잘림 ]  
 [ <sup>鳥頭</sup>잘림 ]  
<sup>秦 百姓</sup>진 <sup>秦 百姓</sup>적의 <sup>秦 百姓</sup>숨은 <sup>秦 百姓</sup>빅성 <sup>秦 百姓</sup>이제 <sup>秦 百姓</sup>와 <sup>秦 百姓</sup>보게 <sup>秦 百姓</sup>되면  
<sup>桃源</sup>도원이 <sup>桃源</sup>여기도곤 <sup>桃源</sup>낫닷 <sup>桃源</sup>말 <sup>桃源</sup>못 <sup>桃源</sup>흐려니  
 065 <sup>川邊</sup>턴변의 <sup>川邊</sup>ㄴ라진 <sup>川邊</sup>되 <sup>川邊</sup>대관녕 <sup>川邊</sup>니어시니  
<sup>斯道難</sup>위티코 <sup>斯道難</sup>놉흔 <sup>斯道難</sup>땃재 <sup>斯道難</sup>축도란이 <sup>斯道難</sup>이러턴가  
<sup>荒 大洋</sup>하늘의 <sup>荒 大洋</sup>도든 <sup>荒 大洋</sup>별을 <sup>荒 大洋</sup>저기면 <sup>荒 大洋</sup>몬질노다  
<sup>荒 大洋</sup>망 〳 대양이 <sup>荒 大洋</sup>그 <sup>荒 大洋</sup>알피 <sup>荒 大洋</sup>틀러 <sup>荒 大洋</sup>이서  
 [125a]  
<sup>大地 山岳</sup>대디 <sup>大地 山岳</sup>산악을 <sup>大地 山岳</sup>일야의 <sup>大地 山岳</sup>흔드는 <sup>大地 山岳</sup>듯

070 <sup>限</sup>밧 <sup>限</sup>업슨 <sup>限</sup>큰 <sup>限</sup>굴형의 <sup>限</sup>흔 <sup>限</sup>업시 <sup>限</sup>빠헌 <sup>限</sup>물이  
<sup>高古 盈縮</sup>만고의 <sup>高古 盈縮</sup>흔굴 ㄴ티 <sup>高古 盈縮</sup>영륙이 <sup>高古 盈縮</sup>잇똥턴가  
<sup>天地間 壯 境界 半</sup>턴디간 <sup>天地間 壯 境界 半</sup>장흔 <sup>天地間 壯 境界 半</sup>경계 <sup>天地間 壯 境界 半</sup>반남아 <sup>天地間 壯 境界 半</sup>물이로다  
<sup>氣運</sup>아마도 <sup>氣運</sup>저 <sup>氣運</sup>기운이 <sup>氣運</sup>무어스로 <sup>氣運</sup>삼겼는고  
<sup>聖人 理</sup>성인을 <sup>聖人 理</sup>언제 <sup>聖人 理</sup>만나 <sup>聖人 理</sup>이 <sup>聖人 理</sup>니를 <sup>聖人 理</sup>못즈오리

075 [ <sup>觀音 鬼神</sup>잘림 ]  
 [ <sup>觀音 鬼神</sup>잘림 ]  
<sup>觀音 鬼神</sup>관음의 <sup>觀音 鬼神</sup>도섭인가 <sup>觀音 鬼神</sup>귀신이 <sup>觀音 鬼神</sup>식어신가  
<sup>藍輿</sup>바회 <sup>藍輿</sup>길 <sup>藍輿</sup>늑은 <sup>藍輿</sup>등의 <sup>藍輿</sup>대남어 <sup>藍輿</sup>느초 <sup>藍輿</sup>메워  
 [125b]

080 <sup>險 味徑</sup>쳐러진 <sup>險 味徑</sup>협흔 <sup>險 味徑</sup>빙애 <sup>險 味徑</sup>얼는 <sup>險 味徑</sup>듯 <sup>險 味徑</sup>다내티어  
<sup>青玉山 疊</sup>청옥산 <sup>青玉山 疊</sup>한 <sup>青玉山 疊</sup>속으로 <sup>青玉山 疊</sup>첩 〳 이 <sup>青玉山 疊</sup>도라드니  
<sup>雲母屏 錦繡帳 左右</sup>운모병 <sup>雲母屏 錦繡帳 左右</sup>금슈장이 <sup>雲母屏 錦繡帳 左右</sup>자우로 <sup>雲母屏 錦繡帳 左右</sup>펼쳐세라  
<sup>雲梯</sup>운교를 <sup>雲梯</sup>걸어 <sup>雲梯</sup>건너 <sup>雲梯</sup>솔 <sup>雲梯</sup>속의 <sup>雲梯</sup>쉬어 <sup>雲梯</sup>안자  
<sup>雲梯</sup>나모 <sup>雲梯</sup>흐는 <sup>雲梯</sup>아히들이 <sup>雲梯</sup>디난 <sup>雲梯</sup>일 <sup>雲梯</sup>못갓고야  
<sup>城門</sup>별암의 <sup>城門</sup>움죽인 <sup>城門</sup>돌 <sup>城門</sup>늘어전 <sup>城門</sup>디 <sup>城門</sup>기 <sup>城門</sup>멧 <sup>城門</sup>히며

085 <sup>城門</sup>딱 <sup>城門</sup>업슨 <sup>城門</sup>넛 <sup>城門</sup>성문이 <sup>城門</sup>어느 <sup>城門</sup>적의 <sup>城門</sup>뵈닷 <sup>城門</sup>말고  
<sup>上佐</sup>이 <sup>上佐</sup>손님 <sup>上佐</sup>늑시완터 <sup>上佐</sup>어이 <sup>上佐</sup>들어 <sup>上佐</sup>와 <sup>上佐</sup>계신고  
<sup>無心</sup>낫 <sup>無心</sup>삿기 <sup>無心</sup>메오 <sup>無心</sup>츠고 <sup>無心</sup>압 <sup>無心</sup>결의 <sup>無心</sup>상재러니  
<sup>無心</sup>나모 <sup>無心</sup>섬 <sup>無心</sup>쓰라 <sup>無心</sup>와서 <sup>無心</sup>무심이 <sup>無心</sup>튼니오니  
 [126a]

090 <sup>眞觀菴 廢</sup>진관암 <sup>眞觀菴 廢</sup>폐 <sup>眞觀菴 廢</sup>흔 <sup>眞觀菴 廢</sup>줄은 <sup>眞觀菴 廢</sup>우리 <sup>眞觀菴 廢</sup>다 <sup>眞觀菴 廢</sup>알거니와  
<sup>牧笛 牧笛</sup>그 <sup>牧笛 牧笛</sup>밧기 <sup>牧笛 牧笛</sup>물을 <sup>牧笛 牧笛</sup>일을 <sup>牧笛 牧笛</sup>목적의 <sup>牧笛 牧笛</sup>부쳐세라  
<sup>變化 無窮</sup>되 <sup>變化 無窮</sup>미희 <sup>變化 無窮</sup>설인 <sup>變化 無窮</sup>농이 <sup>變化 無窮</sup>변화도 <sup>變化 無窮</sup>무궁 <sup>變化 無窮</sup>후야  
<sup>窟宅</sup>음심 <sup>窟宅</sup>흔 <sup>窟宅</sup>오래 <sup>窟宅</sup>소희 <sup>窟宅</sup>굴턱을 <sup>窟宅</sup>삼아 <sup>窟宅</sup>이서  
<sup>窟宅 百尺</sup>층애 <sup>窟宅 百尺</sup>빅척의 <sup>窟宅 百尺</sup>일 <sup>窟宅 百尺</sup>필년 <sup>窟宅 百尺</sup>거러두고  
<sup>白日 雷霆</sup>빅일 <sup>白日 雷霆</sup>뇌정이 <sup>白日 雷霆</sup>동학의 <sup>白日 雷霆</sup>즈자시니  
 095 <sup>白日 雷霆</sup>구쁘러 <sup>白日 雷霆</sup>보턴 <sup>白日 雷霆</sup>줄이 <sup>白日 雷霆</sup>내 <sup>白日 雷霆</sup>일이 <sup>白日 雷霆</sup>썩짜우사

명사를 문이 불아 <small>明沙 白玉柱</small>	동희로 느려가서 <small>東海</small>
빅옥쥬 별은 곳의 <small>東西</small>	해희고 안즌말이 <small>遠近</small>
동서를 모르거니	원근을 어이 알니
	[126b]
창파의 찢는 듯기 <small>滄波</small>	주줄이 펼쳐 이서
100 엇그제 어더 디나 <small>漁村 沙工</small>	어더로 간닷 말고
어촌의 늙은 사공 <small>海上 消息</small>	손혜어 불너내어
희상 소식 <small>後</small>	슬크장 물은 후의
해불을 비야 들고 <small>城門</small>	성문을 드러가니
오〃 군각성의 <small>鳴 郡角聲</small>	희월이 도다세라 <small>海月</small>
105 금쇼정 도로 드라 <small>琴璫亭 七仙</small>	칠선은 괴 뉘런고
금쥬 구스논 <small>金簪 舊事</small>	몇 히나 되엇느니
소선 적벽의 <small>蘇仙 赤壁</small>	학영은 그쳤느디 <small>鶴影</small>
서세 단봉을 <small>瑞世 丹鳳</small>	헛되이 기돌일사
	[127a]
[                    뜰김                    ]	
110 [                    뜰김                    ]	
[                    뜰김                    ]	
[                    뜰김                    ]	
[                    뜰김                    ]	
115 [                    뜰김                    ]	
[                    뜰김                    ]	

[                    뜰김                    ]	
[                    뜰김                    ]	[127b]
임공을 어이 만나 <small>任公 百萬 鱗族</small>	저 고래 낫가니여
120 빅만 닌족을 <small>長劍</small>	다 편케 밍글개고
당검을 찢쳐 내어 <small>曲調</small>	손 속의 거더쥐고
긴 노래 훈 곡조를 <small>珊瑚 碧樹軒</small>	목 노하 붙은말이
산호 벽슈현의 <small>李誦仙 風采</small>	벼람의 비겨 안자
니적션 풍치를 <small>長庚星</small>	다시 만나 볼 거이고
125 당경성 붉은 빗치 <small>太白山</small>	괴 아니 괴롯던가
태빅산 김흔 속의 <small>太白山</small>	게나 아니 가 잇는가
오르며 느리며	슬크장 헤다히니 <small>虛浪</small>
어와 현스홀사	내 아니 허랑흐나
	[128a]
뉴하쥬 ㄱ두 부어 <small>流霞酒 胸襟 兇剛</small>	돌빗을 섯거 마서
130 흥금이 황낭흐니 <small>百年 天地 姜黎</small>	저기면 놀리로다
빅년 텃디의 <small>一夢 唐寅 榮華</small>	우락을 모르거니
일몽 진환의 <small>草</small>	영육을 내 아더나
퍼랑이 초메토리 <small>山林 湖海</small>	다 씨러 불이도록
산닌 호희예	막음긋 노니면서
135 이령성 저령성 구다가아프리나 <small>胡里</small>	허리라
	[128b]